

인간학의 지혜(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듣는)

성인이 된 철학자

1. 진리추구를 업으로, 평생을 구도자로
2. 철학을 탐구한 성인, 신학을 탐구한 철학자
3.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나로 중세의 거목이 되다.

인간은 왜 , ‘왜’라는 질문을 던질까?

1. 실용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2. 남이 나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인가?

1.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
 -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의 원인을 플라톤은 초월적인 곳(저편세계)에서 추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내부에서 추구하였다.
 - 토마스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보다 보편적인 정립과 철학적인 구성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을 차용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사상 노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 토마스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그의 본질로서의 ‘영혼’으로부터 발생하고 완서으로 향하나, 이 영혼 자체의 기원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신의 지성 속에 있는 ‘창조적 형상’들인 것이다. 이 창조적 형상들은 인간이 실현해야 할 혹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셈이다. 토마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토마스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2.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 행복을 향한 의간의 의지와도 같은 것

- 중세인들은 이 지상의 삶을 완전한 행복을 향한 여행이라고 보았고, 이 여행은 저편세계(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토마스는 이를 ‘至福’이라고 부르고 있다.
- 인간에게는 이중의 지복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그의 본성의 원리들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복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지복이다. 이러한 지복에는 신성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따르는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 신학대전
- 토마스는 ‘은총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온다고’생각하며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지복으로 나아가는 수단처럼 생각하였다. 이는 토미즘의 인간주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은 개별적이고 불완전한 행복들 즉 작은 행복들을 통해서 점차 크고 완전한 행복 즉 지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여행의 종착점은 분명 神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
- 복은 오직 神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사랑으로부터 욕망, 슬픔, 기쁨 등 모든 정념들이 발생한다. 그러기에 하나의 열정이나 정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제일 원인으로서의 사랑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 신학대전
- 토마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의 원인이 ‘사랑’이요, 이는 마치 인간실존의 기반과 같이 나타난다.
- 악한 이들도 명예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악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
- 德은 인간을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개별적인 다양한 행복들을 통해서 획득되지는 않는다. 최고의 행복은 인간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선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신학대전
- 인간은 오직 신을 아는 것에 있어서만 그의 최상의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 안에서는 그의 최상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 대이교도 대전
-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가급적 신을 닮고자 하는 데에 있다. -----Ibid

사랑은 자유를 전제한다

형이상학적 갈망은 공허한 것인가?

1. 궁극적인 행복은 욕심인가, 희망인가?

-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원인’을 가정한다면 바로 이 원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神으로 명명한다는 것이다.
-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모델이다. ----- 신학대전

- 분출된 모든 것은 보편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보편적 원인이 神이다.
----- 신학대전
- 창조론에 대한 토마스의 생각은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토마스는 인간이 가지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다른 점을 ‘인간은 본성상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데서 발견하고 있다.
- 동물이나 인간이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동물들은 단지 즐거움 즉 쾌감과 같은 육체적인 선만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본성상 완전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 이러한 완전한 행복은 사실상 ‘至福’이라고 부르는 천국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행복이다.
- 그리스도교에서 ‘영원한 것’, ‘지복’은 지상에서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 명예나 권력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것, 인간의 영혼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즉,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 ‘비움’의 의미가 진정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무엇이든 보다 고차적인 것에 대한 ‘채움’을 위한 ‘비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애초에 인간은 세계의 원인이 되는 근원적인 것과 세계의 목적인 되는 궁극적인 것 즉 신적인 존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은 신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다는’는 성서 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 “인간이란 인간을 무한히 넘어서는 존재”다. ----- 파스칼

2. 학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사랑이다

-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 밀
-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 밀
- 토미즘에 있어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과 일치 through ‘사랑’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완성을 추구하는 것인가?

형이상학적 갈망은 공허한 것인가?

인격의 완성이란 자기다움의 성취이다

- 한 인간이 자아를 추구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곧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인간이 자아의 추구를 통해 진정한 초월성 획득하는 순간에 즉 그 초월적 세계에 진입하는 그 순간에 마주하는 그 초월성은 계시를 통해 밝혀주는 그 '초월성'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계시란 이러한 참된 초월성을 인간의 노력 앞에서 '밝혀주고', 인간의 노력에 앞서 신의 '부르심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줄 뿐인 것이다.

자기사랑과 타자사랑은 다른 것인가?

1. 사랑은 갈망하게

- 사랑은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대한 이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 완전한 앎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 신학대전

2.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완성해야만 하는 것인가?

- 신의 이미지가 어떤 것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것이 완성의 최고 극치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완성에서 피조물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 신학대전

인간은 자유로운가?

1. 무관심의 자유와 자유의지로서의 자유

-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인 것이다.
- 어느 것을 선택하든 만일 그것이 숙고를 동반한 가치판단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이것은 곧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다.

2.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양립될 수 있는가?

갈등하는 인간,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

1.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는 고단한 인생

2. 인간은 왜 현실적인 것의 너머를 추구하는가?

- 영성적인 삶은 본질적으로 '내적인 삶', '정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상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삶이며, '빛을 희구하는 삶'이며,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와 찬미'등 현실적, 종교적 모든 '선'들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적인 삶을 향유하는 이들은 비록 그의 발은 지상을 거닐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저평세계'로 안내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희망' 특히 '초월적인 희망'이라는 하나의 분위기로 충만한 그러한 삶인 것이다.
- 모든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하고자 하는 현대의 물질만능주의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영적으로는) 죽은 삶과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한, 인간은 결코 희망을 잃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희망은 그 자신보다 더 깊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서 솟아나고 있는 빛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